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numbers

vol. 339 | 2026.6.16.

## 한국인의 돈과 삶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 : 평균 13.7억 원!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2. 한국인 월평균 가구 소득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 : 평균 13.7억 원!

현대 한국인들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행복의 전제 조건이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으며,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은 평균 13.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겨 '로도 외엔 현재 삶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비관적 인식이 팽배한 이유다.

그러나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직장인 3명 중 2명(64%)은 평생 쓸 돈이 생겨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일터에서 갈망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성장과 의미, 기회'(53%) 같은 본질적 가치였다.

이번 <넘버즈 339호>에서는 한국인의 돈과 일, 투자 등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자산 투자 열풍 속에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참된 '업(業)의 가치'와 소명을 회복하도록 돕는 목회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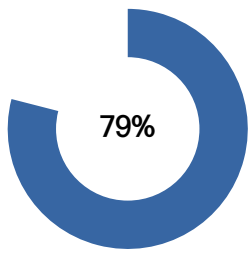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10명 중 7명,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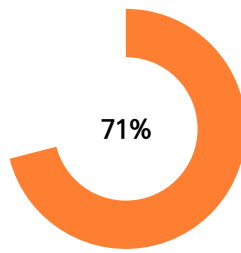
-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79%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돈이 행복의 절대적 척도이자 삶의 전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돈과 행복-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1,000)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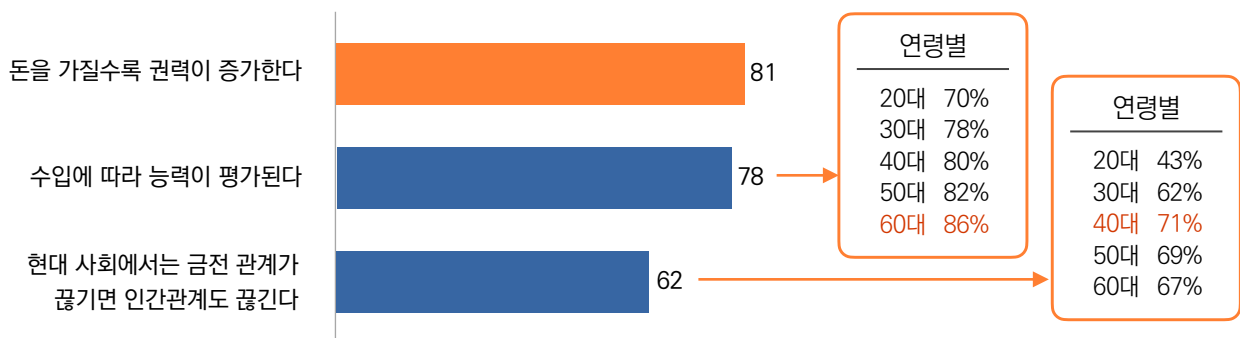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5점 척도

## 돈은 능력·권력·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

- 한국 사회에서 돈은 개인의 지위와 권력을 결정하는 강력한 기준이었다. 국민의 81%가 '돈을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78%는 '수입에 따라 능력이 평가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수입이 능력을 대변한다는 인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20대 70%→60대 86%) 더욱 공고해졌다.
- 또한 국민 10명 중 6명(62%)은 '금전 관계가 끊기면 인간관계도 끊긴다'고 응답했는데, 사회생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그 중심에 서 있는 40대(71%)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점은 자본이 인간관계의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씩씩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림] 돈의 사회적 의미/평가(일반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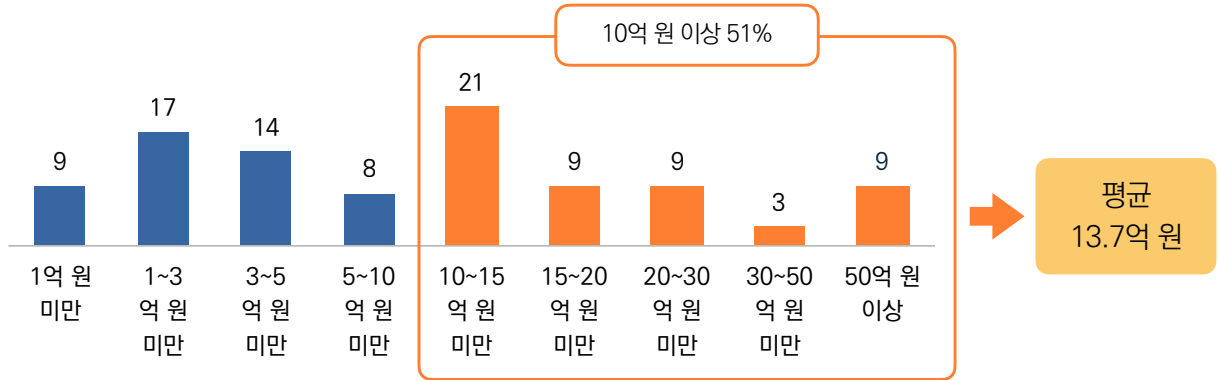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5점 척도

##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 : 평균 13.7억 원!

-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최소 자산 수준은 '10~15억 원 미만'이 21%로 가장 많았다.
- 각 구간별 중간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해보면 13.7억 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분포상 국민 절반(51%)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최소 자산 수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전제 기준, 일반국민, N=1,000,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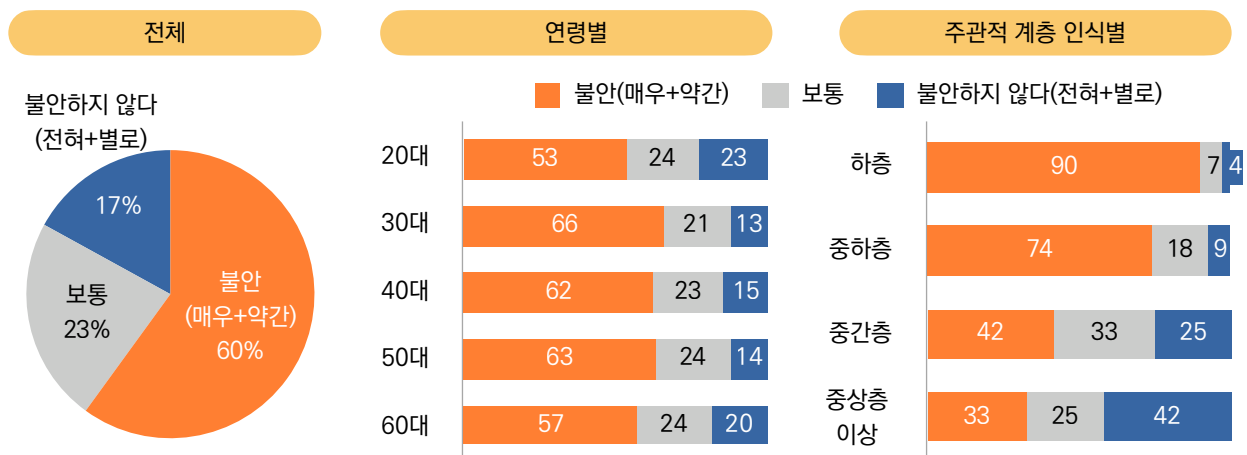
## 02

### [경제적 불안과 계층 인식]

## 국민 5명 중 3명,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안' 느낀다!

-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도'를 묻은 결과, 국민 5명 중 3명꼴(60%)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66%)와 자신을 '하층'(90%)이라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았다.

[그림]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도 (일반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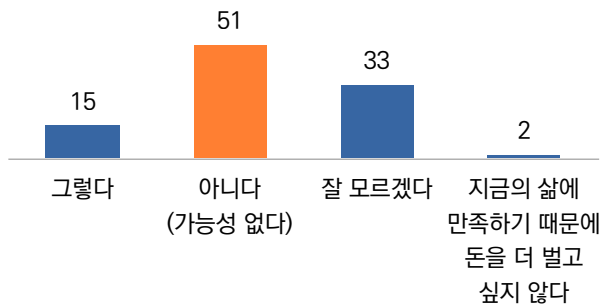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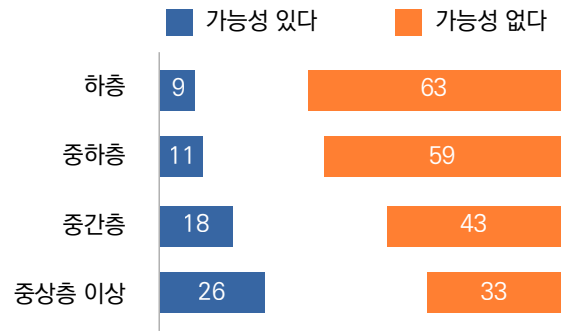
## 국민 절반(51%), '향후 만족할 만한 소득 확보에 비관적'!

-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묻은 결과, 국민 절반(51%)은 '아니다'라고 응답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벌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은 15%에 불과했다.
-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자신을 '중상층 이상'이라 평가한 응답자 중 미래 소득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33%였으나, '하층' 인식 그룹에서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3%가 비관적 전망을 보였다.

[그림] 향후 만족할 만한 소득 확보 가능성 (일반국민, N=1,000, %)



[그림] 향후 만족할 만한 소득 확보할 가능성 여부 (주관적 계층 인식별, 일반국민, N=1,000,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4점 척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에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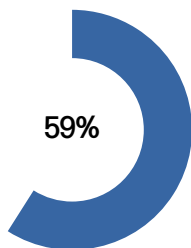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국민 5명 중 3명, '로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 벗어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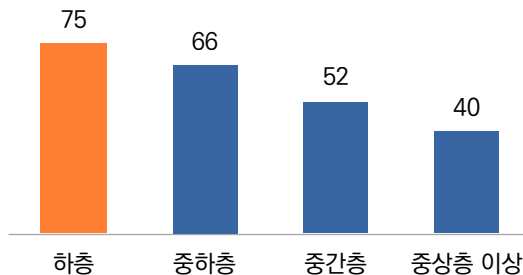
- 한국 사회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은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인 59%가 '우리나라에서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자력만으로는 계층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인식이 넓게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자력 성공 불가능' 인식은 주관적 계층 수준이 낮을수록 한층 강화돼, '하층' 인식 그룹에서는 무려 4명 중 3명에 달하는 7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사회 내 계층 상승 가능성 (일반국민, '그렇다' 비율\*, N=1,000)

우리나라에서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림]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동의율 (주관적 계층 인식별, 일반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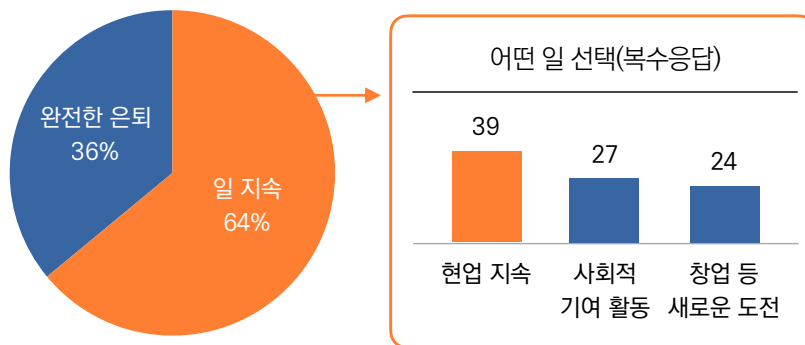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2점 척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 직장인 3명 중 2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할 것!’

- 이번에는 돈과 일에 대한 직장인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 올해 발표된 직장인 성공 인식 조사(리멤버) 결과를 살펴보면, ‘평생 쓸 돈이 생겼을 때 현재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은 결과, ‘완전한 은퇴’를 선택한 비율은 36%에 그친 반면, 직장인 3명 중 2명에 달하는 64%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복수응답) ‘현업 지속’이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기여 활동’(27%), ‘창업 등 새로운 도전’(24%) 순이었다.

[그림] 평생 쓸 돈이 생겼을 때 직장인의 선택 (직장인, N=1,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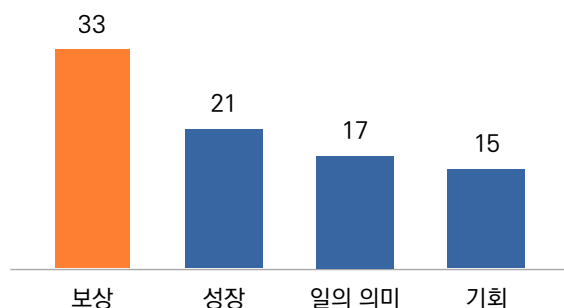


※출처 : 리멤버 보도자료,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 계속할 것”...돈보다 중요한 ‘업’의 가치, 2026.02.25.

## 직장인 절반 이상, 보상만큼이나 ‘성장·의미·기회’에 목마르다

- 직장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결핍 요소를 묻은 결과, 개별 항목으로는 ‘보상’(33.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장’(21%), ‘일의 의미’(17%), ‘기회’(15%) 등 일의 본질과 관련된 가치들의 합계는 53%로 금전적 보상을 뛰어넘었다.
- 이는 오늘날 직장인들이 회사를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고, 업(業)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성장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림] 현재 직장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결핍 (직장인, N=1,022,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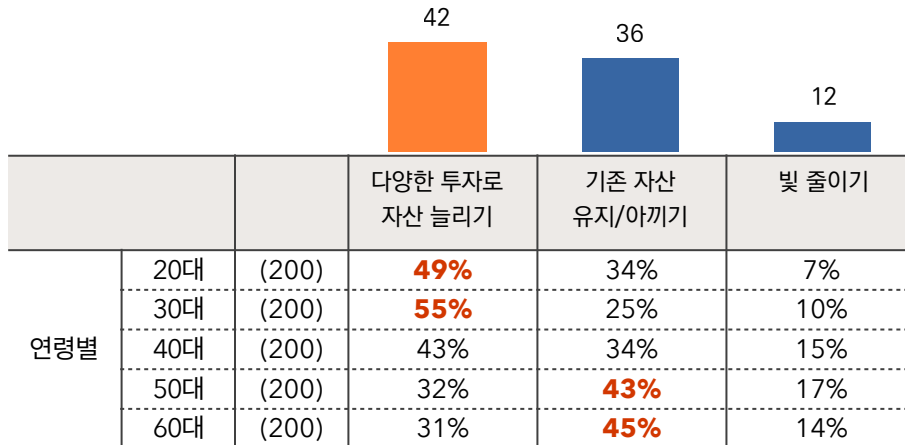


※출처 : 리멤버 보도자료,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 계속할 것”...돈보다 중요한 ‘업’의 가치, 2026.02.25.

## 올해 주요 재테크 전략 1위, '다양한 투자로 자산 늘리기'!

- 2026년 주요 재테크 전략을 묻은 결과, '다양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기'(42%)가 1위를 차지했고, '기존 자산을 유지하고 아끼기'(36%)가 뒤를 이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49%)와 30대(55%)는 다양한 투자를 통한 자산 확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43%)와 60대(45%)는 기본 자산을 유지하고 아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림] 올해(2026년) 주요 재테크 전략 (연령별, 일반국민, N=1,000,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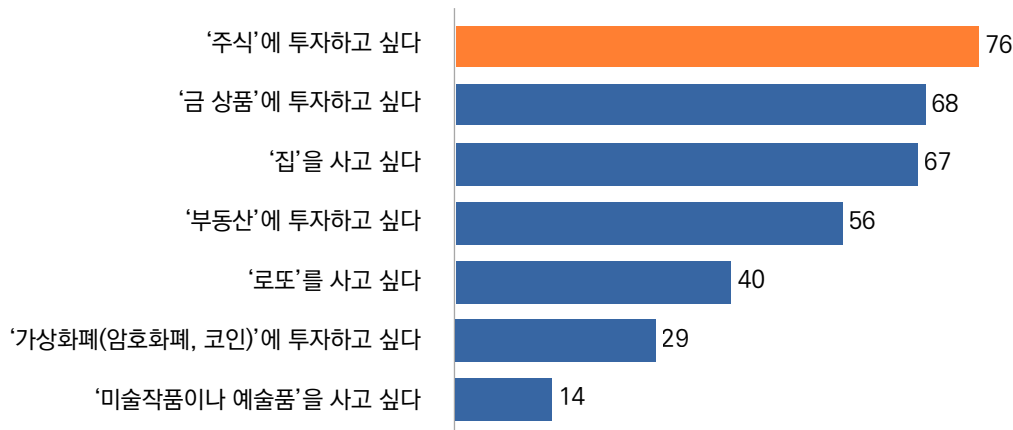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 국민 4명 중 3명, 현재 여윌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겠다!

- 여유 자금 발생 시 희망하는 투자처(투자처별 동의율)를 묻는 질문에 국민 4명 중 3명꼴인 76%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가상화폐'(29%)같은 위험요인이 크거나, '미술품'(14%) 같은 다소 특수한 투자처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쉽게 자금화가 가능하고, 변동성에 대한 방어가 쉬운 주식으로 국민들의 투자 의향이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여유 자금 발생 시 희망 투자처 (일반국민, '그렇다' 비율\*,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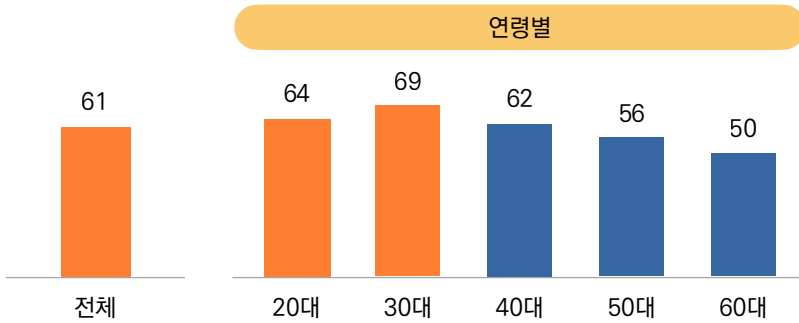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2026.02.(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2.10.~02.11.)

\*2점 척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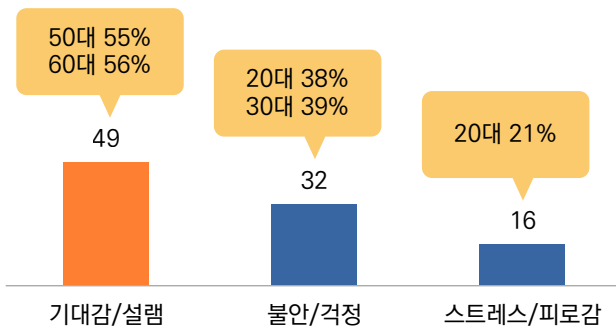
## 2030 청년층, '투자 기회 나만 놓칠라' 소외 불안감 높아!

- 금융 투자 경험자의 61%가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30대(69%)와 20대(64%) 청년층에서 투자 기회에 대한 포모(FOMO)\* 증후군이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실제 투자 과정에서도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됐다. 5060세대는 투자 시 '기대감/설렘'을 느끼는 비중이 두드러진 반면, 2030세대는 '불안과 걱정'(20대 38%, 30대 39%)을 호소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32%)을 크게 웃돌았다. 20대의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감'(21%) 역시 전 세대 중 가장 높아, 청년층에게 투자는 설레는 자산 증식의 기회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또 하나의 생존 경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불안감(FOMO\*)에 대한 인식(최근 1년 내 금융 투자 경험자, '매우+약간 자주 생각함' 비율\*\*, N=1,200, %)



[그림] 실제 투자 시 느끼는 감정(최근 1년 내 금융 투자 경험자, 1+2순위, 상위 3개, N=1,200, %)



※출처: 오픈서베이, 금융 투자 트렌드 리포트 2026, 2026.03.(전국 20~64세 남녀 중 최근 1년 내 금융 투자 경험자 1,200명, 모바일 조사, 2026.02.13.~02.14.)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좋은 기회나 유행에서 혼자 소외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뜻함.

\*\*5점 척도

## 이번호 요약

### 1. 국민 10명 중 7명,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 71%는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해, 한국 사회에서 돈이 삶의 만능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국민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는 자산 기준: 평균 13.7억 원!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최소 자산 수준은 평균 13.7억 원으로 나타났다.

### 3. 국민 5명 중 3명,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안' 느낀다!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도(매우+약간 불안)를 묻은 결과, 국민 5명 중 3명꼴(60%)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66%)와 자신을 하층(90%)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두란노서원, 김의수, 데이비드 서 저)

## 관련 성경 구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의 거대한 흐름과 그 이면에 가려진 현대인들의 내면적 갈망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민 10명 중 7명(71%)이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현실은 '돈이 곧 행복'이라는 씁쓸한 세태를 그대로 방증한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수치의 이면에는 국민 60%가 느끼는 극심한 경제적 불안과 "로또 외엔 답이 없다"는 구조적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 돈을 삶의 전능한 도구로 이상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삶의 피로감과 소외 불안감(FOMO)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와 강의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세상의 물질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돈을 좇도록 강요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향해 참된 위로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모두가 불안하여 돼지 떼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갈 때, 말씀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돈이 개인의 능력과 가치마저 평가해 버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르침을 삶의 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 가치를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 2. 한국인 월평균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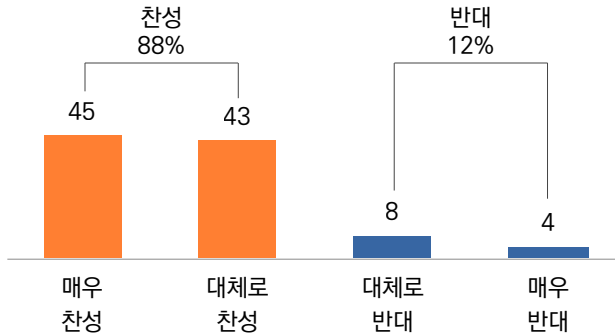




## 국민 10명 중 9명(88%),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에 '찬성'!

-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다.\* 현재 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및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노총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국민의 88%인 10명 중 9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법정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현행 만 60세→만 65세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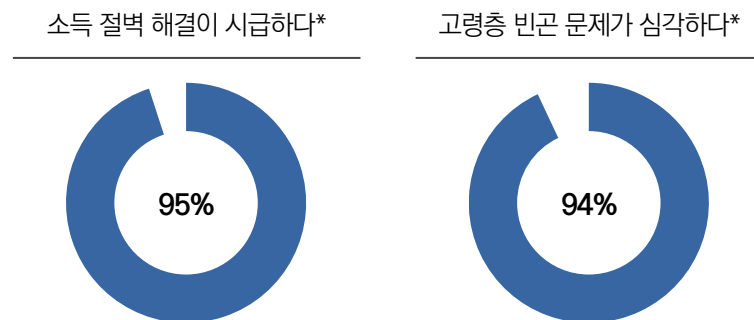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요약보고서, 2026.0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7.~05.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국민 90% 이상, 고령층 빈곤 심각·소득 절벽 해결 시급하다!

-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핵심 배경인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 무려 95%가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우리 사회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에도 93%가 동의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림] 법정 정년 연장 요구의 사회적 배경 (일반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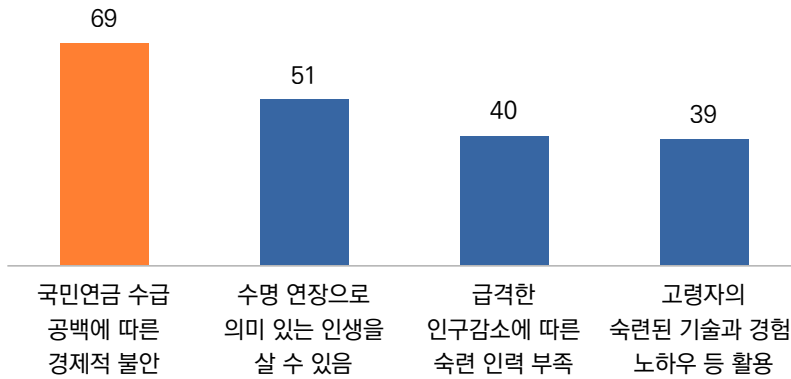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요약보고서, 2026.0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7.~05.28.)

\*4점 척도 (심각하다: 매우+대체로 심각, 시급하다: 매우+대체로 시급)

## 정년 연장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연금 받기 전 경제적 공백’ 때문!

-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묻은 결과(복수응답),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꼽은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1%),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40%) 등의 순이었다.

[그림] 법적 정년 연장의 이유 (일반국민, 복수응답, 상위 4개,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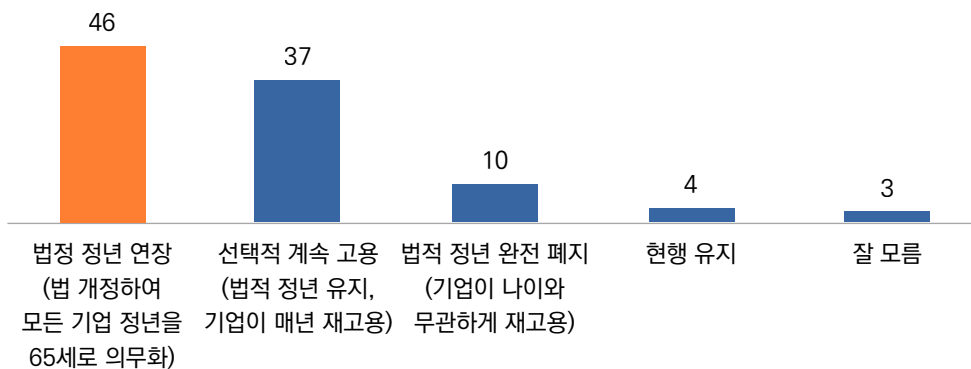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요약보고서, 2026.0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7.~05.28.)

## 국민 절반 가까이(46%), ‘법 개정 통한 65세 정년 의무화’ 선호!

- 선호하는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6%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년은 유지하되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계약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였으며, 아예 ‘법적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그림] 정년 연장 선호 방식 (일반국민, N=1,000, %)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요약보고서, 2026.0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7.~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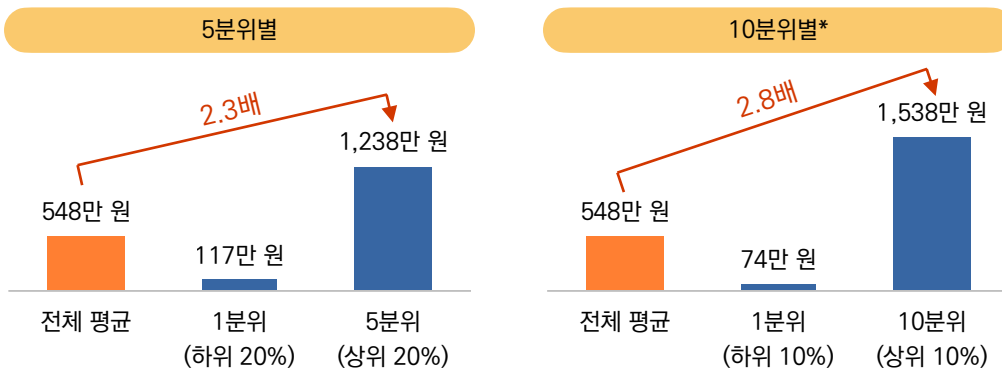


## [한국인 월평균 가구 소득]

###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548만 원

-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 2026년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가구의 경우 1,238만 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2.3배 차이를 보였다.
- 소득 10분위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져, 상위 10%는 1538만 원이었고, 하위 10%는 74만 원에 불과했다.

[그림] 소득 분위별 월평균 가구 소득 (2026.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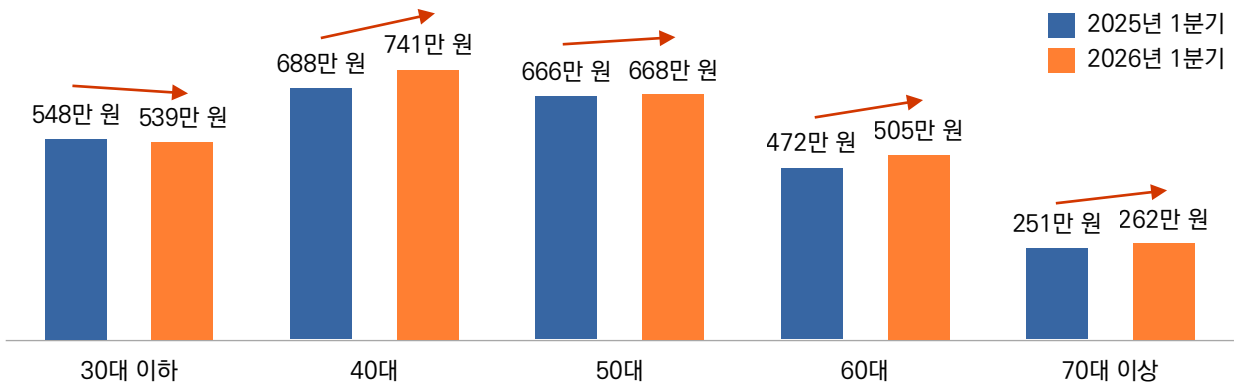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6.05.28.

\*출처: KOSIS(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1인 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144&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144&conn_path=I2))

### ‘30대 이하 가구’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월평균 가구 소득 ‘감소’!

- 이번에는 가구주 연령대별로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본다. 2026년 1분기 30대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9만 원으로, 1년 전(548만 원)보다 1.6% 감소했다. 50대(+0.3%)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40대(+7.7%), 60대(+7.0%), 70대 이상(+4.4%) 모두 소득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 한편,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40대 가구(741만 원)와 30대 이하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해 14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율로 보면 거의 30%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가구 소득 (해당연도 1분기 기준)



※출처 : KOSIS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2026.0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10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108&conn_path=I3))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65호 \(2026년 6월 2주\)](#)

-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지방선거 사후 평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재선거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2호 \(2026년 6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현 국가경제 인식, 주요 정책 과제 평가

## 사회 일반

### [\[소셜+\] "먹살 잡히는 느낌"...젠지 넘어 직장인도 "전화보다 카톡"](#)

연합뉴스\_2026.6.11.

### [\[샷\] "집에 TV도 없다"](#)

연합뉴스\_2026.6.11.

### [\[샷\] 그는 결국 햄버거를 사먹지 못했다](#)

연합뉴스\_2026.6.14.

### ["주식 팔아 강남 집 샀다"...4개월간 3.7조원 주택시장 유입](#)

연합뉴스\_2026.6.14.

### [고환율에 올여름 해외여행 예약 82%가 근거리...중국 비중 1위](#)

연합뉴스\_2026.6.15.

### [소아과 갔다오는 데만 80분...음·면 진료 열악](#)

동아일보\_2026.6.12.

### [결석률 OECD 최저 한국... 학교선 자거나 짬짬 절반](#)

동아일보\_2026.6.12.

### [대학졸업후 취업준비 사교육비 연 455만원...3년 만에 228만원 ↑](#)

연합뉴스\_2026.6.9.

### [2026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6.9.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이주배경 고교생 처음으로 3만명 돌파...5년새 2.7배 급증](#)

연합뉴스\_2026.6.10.

### ["첫 집 사는 30대들, 물려간 이 동네"...어디길래?](#)

매일경제\_2026.6.12.

### ["26년간 늘기만 했는데, 그게 꺾였네"...2030 상용직 코로나 후 최대 감소](#)

매일경제\_2026.6.15.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적자 인생’은 기본값…일해서 벌어도 불안해 \[뉴노멀-2030 빅데이터\]](#)

한겨레\_2026.6.15.

### [부의 사다리 끊겼다, 청년 빈곤층 5년새 2배로](#)

중앙일보\_2026.6.12.

### ["5년 일해도 대기업 신입보다 덜 받아"…중소 청년 '성장 사다리' 끊겼다](#)

조선비즈\_2026.6.8.

###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 83% 찬성"](#)

연합뉴스\_2026.6.15.

## 노인

### [연금액으로 실버타운 비용 낸다…국민연금 노인주택 시동 거나?](#)

연합뉴스\_2026.6.13.

### ["서울에서 120만명 사라진다"…청년은 반토막, 노인만 덩그러니](#)

매일경제\_2026.6.14.

## 경제 · 기업

### [커지는 반대매매, 더 커지는 빚투](#)

중앙일보\_2026.6.12.

### ["연봉보다 성과급, 정규직보다 대기업"… Z세대 첫 직장 공식 바뀐다 \[고용 인사이트\]](#)

동아일보\_2026.6.15.

## 국제 · 환경

### ["뉴질랜드 국민, 중국보다 미국을 더 위협으로 인식"…여론조사](#)

연합뉴스\_2026.6.10.

## 건강

### [수족구병 급증세, 의심환자 작년의 2배](#)

동아일보\_2026.6.15.

## 기독교 · 종교

### [美 최대 개신교단 '여성 목회자 교회 배제' 1차 통과](#)

국민일보\_2026.6.12.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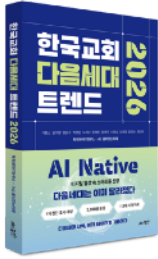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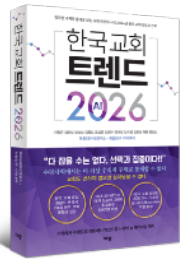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의 주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목회자 총 3,308명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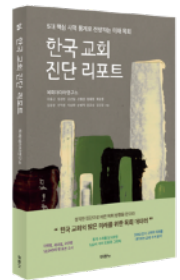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디지털 전략 웨비나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6월 23일(화) 14:00~16:00
- 2) 강사 : 홍성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코칭 리더십 전문가)
-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4) 참가비 : 무료
-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_전문 퍼실리테이션 교육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6월 25일(목) 13:00~16:3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 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 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